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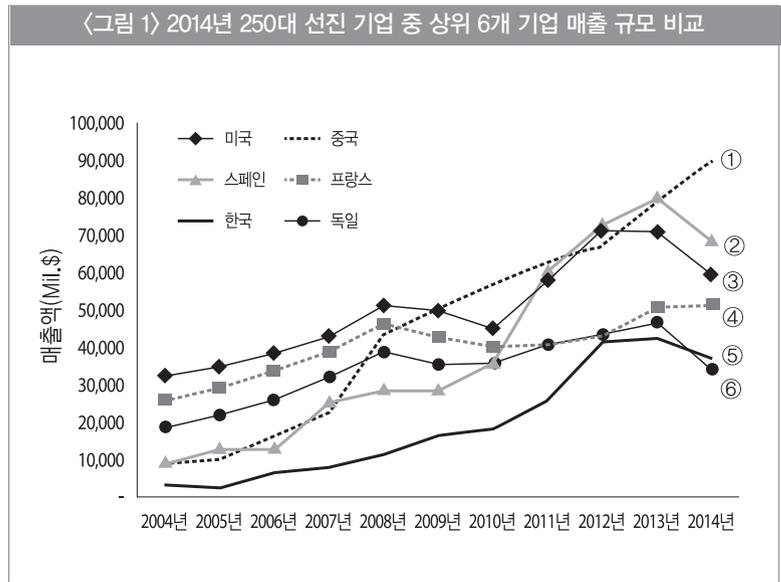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 ‘잠재 리스크 탐색’ 기능 더 높여야

유위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syoo@cerik.re.kr

중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에 이어 5대 건설 강국 진입

지난 8월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50개 선진 기업 매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점유율 7.1%를 기록하며 세계 건설 5대 강국으로 진입하였다. 특히, 50위 안에 6개의 국내 건설기업이 포함되어 세계 건설 강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건설산업의 쾌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



출처 : 2014년 ENR지,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지하기 위해 내실 있는 사업 수주 과제로 인식되면서, 최근 국내 업체 확대 및 수익성 향상 전략이 중요한 들은 수행하고 있는 해외 사업의 잠

재 리스크 규모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탐색기(explorer)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건설기업은 이러한 기능을 일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초기 경보의 역할보다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알람을 제공하는 특징이 강하다.

선제적 대응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기 경보로서의 리스크 탐색 기능이 절실한 시점에 본고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종별, 권역별, 규모별 사업들의 잠재 리스크를 탐색하면서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자 한다.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인지·탐색 중요

2013년과 2014년에 해외건설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손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내 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 진출의 성과와 관련된 영업 이익(손실), 수주/매출 규모, 원가율 등의 변동량 증감을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수주 잔고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 성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별 사업의 이익, 매출 규모 확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은 결국 체계적인 사업 수행 실적의 모니터링 기능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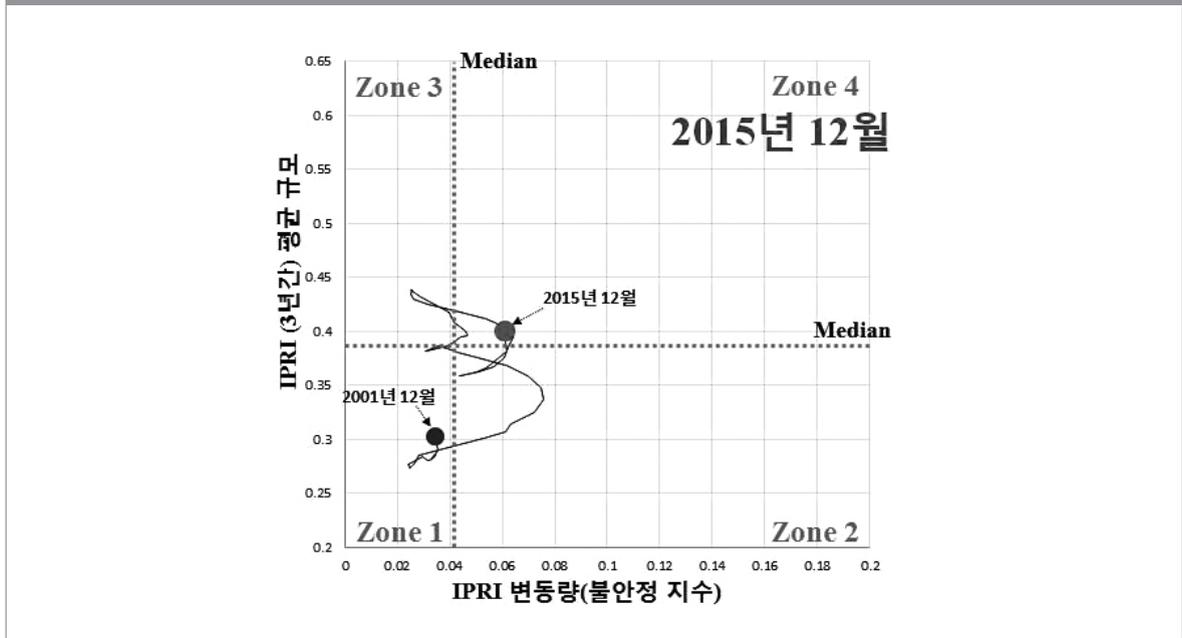
본고에서 제공하는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IPRI), 리스크관리 체계의 불안정지수(UI), 집중 관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한 민감도지수(SI),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의 실적 추이를 제시하는 2WF (Watching, Warning, Forecasting)의 기능을 활용하면 기업과 산업 차원에서 해외건설에 대한 잠재 리스크의 추이를 계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는 지난 6월 한국건설산

〈그림 2〉 공종별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 추이(공종별 사업 규모 비중 반영)



〈그림 3〉 리스크관리 체계의 불안정지수 추이(2015년 12월 추정)



연구원에서 발표하기 시작한 해외 건설사업 리스크지수(IPRI)의 추이와 향후 트렌드에 대한 결과로, 공종별/권역별/사업 규모별/기업별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의 인력 공급, 유동성, 현금 흐름 등의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은 특정 시점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 및 사업 수행 성과의 불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불안정지수(UI)이다. UI를 공종과 기업 단위로 분석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들에 의해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을 간접적으

로 추적할 수 있다.

〈표 1〉은 각 분류 영역별로 총체적 리스크지수에 미치는 영향도를 설명하는 민감도지수(SI)를 공종별, 권역별, 규모별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해외 건설사업의 수행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MENA) 권역의 산업설비 부문이 약 39.7%, 5,000억원 이상 사업(C와 D 규모)에서 61.1% 정도의 잠재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민감도지수(SI)는 특정 시점에 집중 관리의 시급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인지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 알람을 제공한다. 아울러 리스크지수(IPRI)와 불안정지수(UI), 그리고 민감도지수(SI)를 종합하면 사업의 진행 현황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행 상황도 전망할 수 있다.

잠재 리스크에 대한 탐색은 근본적으로 사업, 기업, 산업 차원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정부 지원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주 규모 확대와 함께 사업의 잠재 리스크 규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탐색 기능이 중요하다.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

〈표 1〉 공종별/권역별/규모별¹⁾ 사업에 대한 민감도지수(2015년 12월 추정)

SI Matrix	MENA	Asia Pacific	AMERICA & Europe	A 규모	B 규모	C 규모	D 규모
건축	6.07%	6.53%	0.02%	0.13%	3.58%	3.16%	5.73%
토목	9.41%	4.31%	0.28%	0.13%	6.52%	3.72%	3.62%
산업설비	39.74%	23.43%	9.97%	0.14%	11.84%	22.86%	38.31%
기타	0.03%	0.20%	0.01%	0.07%	0.16%	0.02%	0.01%

여 손실의 현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잠재 리스크의 탐색과 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프로젝트관리 및 리스크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문화, 정책, 조직 관리 등의 현안이 동시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시장의 수요는 기업의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주 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건설 강국 유지해야**

2014년 기준 한국은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결과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살펴보면, 2013년 5위였던 독일을 제치고 5위로 상승

한 요인이 독일의 하락 폭이 한국의 하락 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발생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손실 규모를 미루어볼 때 한국 건설산업이 5대 강국으로 정착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 금융 상황과 시장에서 발주되는 물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주 규모 확대와 동시에 수익성 제고 방안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수주 산업이 수주 규모를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주 확대와 수익성 제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필수 목표가 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세계 금융 환경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지난 6월에 해외 진출 50년 만에 7,000억 달러

의 누적 수주 규모를 돌파하였다. 최근 해외건설시장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는 수익성 제고와 손실의 현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금융 정책 지원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탐색 기능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수주 산업인 건설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전적 파악과 분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CERIK

1) A, B, C, D 규모 그룹은 각각 '1,000억원 미만', '1,000억~5,000억원', '5,000억~1조원',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정의됨.